LH 한국토지주택공사	보도자료	희망을 위한 LH의 약속, Life with Hope

배포 2026. 11. 04.(수) /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

한국토지주택공사(LH), 대규모 발주 확대로 단가 인하 및 생산체계 대전환 이끈다

- LH CEO 주재 모듈러업계 간담회 개최… 대통령 현장지시 후속조치 본격화
- '30년까지 1.8만 호+@ 발주로 '규모의 경제' 실현… 민간 설비투자 유도

□ 한국토지주택공사(LH)는 모듈러 산업 활성화 및 주택공급 신속·확대를 위해 대규모 발주 확대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.

○ LH는 3일(화)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이성훈 LH 사장과 국내 대표 모듈러 제조기업 6개사*가 참여한 가운데 「모듈러주택 활성화 간담회」를 개최했다.

* ▲엔알비 ▲플랜엠 ▲유창 ▲금강공업 ▲대승엔지니어링 ▲자이가이스트

○ 이번 간담회는 지난 10월 20일 대통령의 인천계양 3기 신도시 현장 방문서 지시된 '모듈러주택 대량생산 구축, 발주 확대를 통한 업계 설비투자 견인 및 제작단가 인하'를 신속히 이행하고자 마련됐다.

□ 이날 LH는 정부의 '8.13 주택 신속공급 방안' 등 공급 정책 이행을 위해 마련한 'LH 모듈러 발주계획'을 업계와 공유하고, 안정적인 물량 공급으로 제조사의 공장 가동률 저하 불안을 해소할 것임을 강조했다.

○ 구체적으로, 남양주왕숙2 A10블록(555호), 고양창릉 A3블록(668호), 포천송우2 A1블록(916호) 발주를 속도감 있게 매듭짓고, '27년부터 '30년까지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연간 3천호 이상, 5년간 총 1.8만 호+@(4.8조원 규모)를 차질 없이 발주할 계획을 알렸다. 특히, 발주물량 조기화를 통해 '27년 발주 물량을 3,500호 이상으로 확대할 것임을 설명했다.

[LH 중장기(2026~2030) 모듈러주택 발주계획]

2026년	2027년	2028년	2029년	2030년	합계
2,200호	3,500호+@	3,500호+@	4,000호+@	4,500호+@	**17,700호**

□ 발주 계획에 이어 모듈러 업계 활성화 및 유동성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소개했다.

○ LH는 민간의 기술개발 및 자동화 설비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'기술유도 기간'을 도입한다. 첫 번째 사례는 포천송우2 A1블록으로, 올해 말 조기 발주를 통해 사업자 선정 이후 착공까지 R&D 및 자동화 양산 준비기간을 업계에 부여한다.

○ 시장 형성 초기 단계에 자동화 설비투자 등 대규모 자금 투입이 불가피한 모듈러 업계의 유동성을 지원하고자 기성 지급 방식에도 변화를 모색한다. 모듈러주택이 현장에 반입된 후 기성이 지급되던 방식을 공장제작 진행에 맞춰 기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.

○ 아울러, 모듈러주택의 규모별·연도별 단가 인하 목표를 설정하고, 원가절감 실적에 따라 물량을 배정하는 물량-단가 연동제를 도입함으로써 업계의 사업성 개선 노력을 촉진한다.

○ 간담회에 참석한 제조사 경영진은 "그간 일회성 단발 발주로 공장 가동률 유지와 설비투자 결정에 애로가 많았다"며, "전례 없는 1.8만 호 대규모 연속 발주에 깊이 감사드리며, 민간 업계 역시 자동화 라인 투자를 통해 제작단가를 획기적으로 낮춰 고품질 주택 공급으로 보답할 것"이라고 화답했다.

□ 또한, 이날 간담회에서는 모듈러주택의 특성을 반영한 실질적 발주·품질기준 도입과 제도적 규제 완화 건의가 심도 있게 논의됐다. 기존 공법 대비 20~30% 공기가 단축되는 모듈러의 강점을 살려, 발주 체계 혁신, 모듈러 특화기준 신설(건식바닥+시스템 냉난방 등), 품질 인증제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.

□ 한편, LH는 세종 5-1블록(12층, 450호)과 의왕초평 A4블록(22층, 381호, 장수명주택 우수등급 획득) 등 실증 단지에서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품질 체계 고도화에 박차를 가한다.

○ 제품 등록을 마친 조달청 나라장터 모듈러주택(36㎡, 46㎡, 54㎡)을 바탕으로 표준화된 도면을 기반으로 한 '주문 후 대량생산(Make to Order)' 체계를 거쳐, 시장 성숙기에 '선생산·후현장조립' 체계로 진화시킴으로써 공기단축과 원가절감을 가속한다.

□ 이성훈 LH 사장은 "모듈러주택은 건설인력 고령화와 숙련공 부족, 안전사고 및 품질 문제를 일거에 해결하고 국가 주택공급 속도를 비약적으로 끌어올릴 핵심 솔루션"이라며, "대규모 발주라는 마중물을 통해 민간의 과감한 설비투자와 단가 경쟁력을 높이고, K-모듈러 주거 생태계를 구축해 미래 주택산업의 대전환을 완수하겠다"고 강조했다.

담당부서	주거혁신처	책임자	팀 장	노태극	(055-922-4043)
		담당자	차 장	노준오	(055-922-4066)